

농생명·바이오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열어

전북자치도·바이오진흥원, 지원사업 통합설명회·17개 유관기관 분야별 현장상담소 운영

전북도가 미래성장 산업화를 선도하는 “농생명·바이오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갖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도정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했다.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2월 6일 바이오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도내 농생명·식품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농생명·바이오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도 김광영 지사의 환영사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농촌특별위원회 임승식 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도 유치행사도 같이 이루어졌다.

이날 설명회는 바이오진흥원뿐만 아니라 전북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OTRA 전북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지식재산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전북연구개발특



6일 바이오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자북지역 농생명·식품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농생명·바이오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하고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행사를 가졌다.

구본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노사발전재단, 전북여성가족재단 등 17개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해 기관별 지원사업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주요 기관별 지원사업이 총망라된 소개책자를 현장에서 배포함과 동시에 바이오진흥원과 유관기관 13개 분야에 대한 상담소가 차려져 기업측면에서 궁금한 사항과 현안, 애로사항에 대한 분야별 기관 전문가의 현장상담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도 농식품산업과 백승하 과장의 '25년 농생명식품산업 육성 도정시책' 설명과 더불어 농식품 분야 최고 전문가로 한국식품연구원장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원장을 역임한 김동수 원장을 초청하여 도내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에게 '최신 국내 및 글로벌 푸드 트렌드'를 주제로 특강도 열렸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농생명·바이오 산업은 생명경제 시대를 선도하고

농생명 산업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핵심 성장동력이다. 전북특별법을 통해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농생명산업지구 7곳을 선정하고 국가 거점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농업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농업·농촌특별위원회 임승식 위원장은 “농생명·바이오산업이 농업과 식품산업에 아우르며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설명회를 주관한 바이오진흥원의 이은미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함께 성장하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생명․바이오기업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정보와 여러 전문가들의 상담을 현장에서 받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 전하고, “앞으로도 바이오진흥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농생명산업 수도로 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는 6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챌린지

주택금융공사 박주량 전북지사장, 응원 캠페인 동참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는 6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한국전력 전북본부장에게서 릴레이를 이어 받은 박주량 지사장은 “2036 하계올림픽은 전북에서”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며 응원 캠페인을 수행했다.

박주량 지사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다면 침

체되어 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북지역이 세계적 문화관광 명소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175만 도민들과 함께 2036 하계올림픽의 지역유치를 간절히 염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량 지사장은 다음 참여자로 신한은행, 박병한 전주지점장을 지목하여 응원 릴레이를 이어갔다.

/김옥기기자

2024년 축협 경제사업 우수사례 ‘대상’

전주김제완주축협,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 축산환경 개선 기여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은 6일 ‘농협 전북본부(총괄본부장 이정환) 대강당에서 실시된 2월 정례회에서 2024년 축협 경제사업 우수사례 평가대회’ ‘축산환경개선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축협의 경제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 유도과 사례확산 견인을 목표로 농협경제지주가 주관하는 우수사례평가대회는 △판매역량 강화, △가축사육환경개선, △축산환경개선, △전환사업강화, △사업사업 강화 등 총 6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전국 축협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으며, 수행노력, 성과,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PT발표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축산환경개선부문의 ‘국내 최초로 시도된 우분고체연료화사업’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우분고체연료화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고체 연료로 전환하여 에너지 자원화하는 혁신적인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축분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축산농가의 가장 큰 고민거



리인 축분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 폐기물을 경제적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축산업과 환경 보호의 조화를 실현했다는 노력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창수 조합장은 “우리 축협이 경제사업 우수사례 평가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전 조합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우분고체연료화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며 소감을 전했다.

대상을 수상한 전주김제완주축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무이자자금 5억원을 지원받으며, 이를 재원으로 조합원의 실익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북전주축협, ‘유류사업 1000만 리터 달성탑’ 수상

북전주축협(조합장 이우광)이 6일 농협전북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정례회회에서 ‘유류사업 1천만 리터 달성탑’을 수상하며, 북전주축협 주유소가 경제사업활성화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렸다.

북전주축협 주유소는 “조합원이 잘사는 농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정직과 믿음을 바탕으로 정품·정량의 각종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주유소로 인정받고 있다.

북전주축협 이우광 조합장은 “국내 경기침체와 어려운 농업·농촌 상황에서 임직원들이 경제사업활성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유류사업 1천만리터 달성의 영광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버섯 품종 개발 빨라진다’... 농진청, 교배 핵심 유전자 밝혀내

버섯 호메오도메인2 유전자 결핍되면 정상 교배 안 되는 점, 학계 최초 규명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리보핵산단백질(RNP) 유전자 가위로 만든 표고버섯 교배형 유전자 교정체를 활용해 교배의 핵심 역할을 하는 유전자 기능을 학계 최초로 밝히는 데 성공했다.

버섯은 동물, 식물보다 유전자 정보가 부족해 서로 다른 군사체를 교배하는 전통 육종에 의존하고 있다. 교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유전자는 호메오도메인1, 2가 알려졌지만, 이들 유전자는 기능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육종가들은 100~1,000여 개에 달

하는 교상 균주를 현미경으로 보며 교배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교배형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기 위해 리보핵산단백질(RNP)과 세포 수송에 유리한 나노입자 복합체로 호메오도메인1, 2 유전자 결핍 교정체를 개발한 뒤, 돌을 교배했다.

그 결과, 호메오도메인2 유전자가 결핍된 교정체는 교배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호메오도메인1 유전자가 결핍된 교정체는 정상 교배됨을 확인했다. 이는 교배에 영향이 적은 호메오도메인1과 달리, 호메오도메인2가 교배에 결

정적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는 수작업으로 진행해 온 버섯 교배 여부 확인을 호메오도메인2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분자표지를 통해 간소화할 수 있음을 확인한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 사업단 과제로 진행한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해 12월 국제학술지(Journal of Fung)에 게재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유전자 교정체 확보 기술은 특허 출원을 마쳤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전주시는 오는 11일까지 근로 의사가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

준중위 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전주시민이다. 저소득층과 여성, 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우선 선발, △공공근로 사업 등 타 일자리사업 참여자 △세대 2인 이상 참여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시는 △청년물 매니저 사업 △전주맛바달 홍보지원사업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사업 등 7개 부서, 8개 사업에 총 9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근로조건은 1일 7시간씩 주 35시간이며, 임금은 시급 1만800원과 간식비 1일 5000원에 주·월차, 공휴일 유급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